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4년도 표어 ◎

보혜사 성령이여 깨끗케 하소서(시51:10)

◎ 행동지침 ◎

- 1. 바른생활
- 2. 바른교회
- 3. 바른국가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 가족이 모여 함께 드리는 설날 예배

### 예배순서

인도: 가족 중 어른

- 묵도 . . . . . 다함께
- 성시 . . . . . 시편23편 1~6절-인도자
- 찬송 . . . . . 460장 . . . . . 다함께
- 기도(또는 사도신경) . . . . . 가족중(또는 다함께)
- 성경봉독 . . . . . 창세기 45장1~15절 . . . . . 인도자
- 말씀 . . . . . “하나님...하나님...하나님” . . . . . 인도자
- 찬송 . . . . . 434장 . . . . . 다함께
- 주기도문 . . . . . 다함께

요셉의 일생을 보면 그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항상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과거의 고난도, 현재의 모든 것도, 그리고 미래의 일들까지도 모두 하나님께서 절대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오늘, 요셉의 일생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제일 원인이 되시며 개인과 가정, 민족과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우주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대해 생각해보겠습니다.

#### 1. 악의 존재에도 개입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선한 일만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역경과 고난과 슬픔과 고통의 순간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악의 근원이 되신다거나 우리에게 악을 행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원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께서 악을 이기지 못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을 패는 형들의 악행을 묵과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악과 악한 행위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으로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우리 주변의 모든 일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분도 아닙니다.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활동까지도 제약을 가하시며 악의 범위를 한하십니다.(욥1:12) 요셉은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기를 관 형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도움을 베풀며 사랑으로 품을 수 있었습니다.(8절)

#### 2. 선한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청년 요셉에게 계속된 고난은 우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선을 이루십니다.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 간 것, 음탕한 보디발 부인에 의한 유혹적인 상황,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 등 요셉에게 일어난 사건 자체는 분명 악하고 억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셉의 일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심지어 악한 것도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시어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날들을 나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수단으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당함이 유익이라고 고백했습니다.(시119:67)

함락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결국 요셉 까닭에 그의 가족과 민족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의인을 구원하시고 복 주시기 위해 의인 주변에 있는 생령까지도 구하시므로(5절) 다른 사람도 그 선한 사역의 혜택을 누립니다.

#### 3. 용서와 주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

요셉이 형들에게 책임을 추궁하였다면 결코 용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 주변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기도한 적이 있는가를 자문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시는 높이신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셉의 일생을 통해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하나님...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반복해서 나타내주십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먼저 부르던 요셉처럼 하나님께서도 악도, 선도 다스리시며 절대주권을 가지시고 개인의 삶도, 역사도, 우주도 운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셉까닭에 그 주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개인과 가정이 복의 기관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 2004년 설연휴를 말씀과 함께

## 22일(목) 23일(금) 양일간 성경통독사경회 개최

우리교회는 매년 초 설날 연휴를 맞아 온 성도가 교회에 함께 모여 한자리에서 한마음으로 한 말씀을 읽는 성경통독사경회를 개최하고 있다.

금년 설날 성경통독사경회의 범위는 신약성경 전권으로 4복음서와 사도행전, 바울서신, 히브리서, 공동서신, 오한계시록을 다 읽게 된다. 한자리에서 신약성경 전권을 통독하는 은혜의 자리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아멘으로

함께 승리하는 설날이 되도록 기도한다. 참가비는 10,000원이다.

한편 교회는 이번 설날 고향으로 떠나는 성도들을 위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설날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준비하여 본지 1면에 게재하였다. 고향에서 가족 친지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란다.

## 화요 정오 음악회 개최

봄: 4월 6일 ~ 5월 25일, 가을: 10월 5일 ~ 11월 23일  
기간중 매주 화요일 정오 본당에서

지난 2003년 11월 파이프 오르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한 우리교회는 이 귀한 악기를 만인이 함께 감상하고 선교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올해 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화요일 정오에 오르간 연주회 시리즈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본 음악회의 기간은 봄철에는 4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가을철에는 10월 5일부터 11월 23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봄철에는 오르간 독주회(Solo Organ Recital)로 준비하고 가을철에는 오르간과 함께하는 실내악 연주회(Chamber Music Concert with Organ)로 꾸며질 예정이다. 연주시간은 위의 기간 중 매주 화요일 정오부터 45분간이며 각 8회씩 총 16회 연주를 하게 된다.

참가자격으로는 봄 오르간 독주회에 참가할 연주자는 대학 졸업 후 4년 이상 국내외에서 수학한 한국 오르가니스트 협회 정회원이면 가능하고, 가을 오르간과 함께 하는 실내악 연주회에 참가할 연주자는 한국 오르가니스트 협회 정회원 및 학생회원과 그 동료들이면 가능하다.

심사는 프로그램과 연주자들의 이력 및 활동사항을 중심으로 한다. 봄철 오르간 독주회에 참가할 연주자들은 오는 2월 20일(금)까지, 그리고 가을철 오르간과 함께 하는 실내악 연주회에 참가할 연주자들은 6월 20일(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서울교회 홈페이지([www.seoulchurch.or.kr](http://www.seoulchurch.or.kr))와 사무국에서 받는다.

## 비전 2020 후원자 명단

강애자 고윤화 김광태 김규태 김명옥 김양숙 김점숙 김찬진 김태기 김형배 박금실 박민숙 박상용 박정선 박정섭 송영강 신삼철 신용식 양춘경 오정수 유관모 유근중 유영준 유희숙 윤태욱(박순복) 이영기 이영희 이진국 임병권 임홍수 장 덕 전용순 전용식 정복순 정상달 조미환 주경자 최영순 최임수 최호영(천정화) 하영수 하대현 한나여전도회 홍순복(다음 주 계속)

## 2004년! 질서의 하나님을 배우자

예배위원회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철저한 질서 속에서 창조의 섭리를 이루셨다. 순서가 있었고 먼저와 나중에 있었으며 질과 양에 대하여도 적당한 조절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 1:31) 말씀하신 하나님의 창조섭리를 한 해 동안 묵상하며 질서의 하나님을 본받아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몇 가지 목표를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예배 시에는 온 성도님들은 2층 예배당 앞자리부터 채우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중직자들의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솔선하여 모범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퇴장은 앞줄부터 차례로 퇴장하여 질서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이도록 합시다.

둘째, 엘리베이터는 노약자 및 어르신에게 양보하면 좋겠습니다.

예배안내위원을 배치하여 노약자 및 어르신들을 우선하여 탑승토록 하겠습니다. 양보와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일방통행을 생활화하면 좋겠습니다.

2,3,4층에서 예배드린 성도님은 오르고 내릴 때 반드시 일방통행을 지켜주셔서 안전하고 편하며 기분 좋은 시간들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라갈때는 왼쪽 계단 내릴 때는 오른쪽 계단)

## 금주의 성구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푼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 3:12-14)

Not that I have already obtained all this, or have already been made perfect, but I press on to take hold of that for which Christ Jesus took hold of me. Brothers, I do not consider myself yet to have taken hold of it. But one thing I do: Forgetting what is behind and straining toward what is ahead, I press on toward the goal to win the prize for which God has called me heavenward in Christ Jesus. (Philippians 3:12-14)



전국시민양성

## 고등부 겨울수련회에

##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9일(목)-31(토) 3일간 연동교회 수련원에서



이복규 장로(고등부 부장)

학생들의 영혼구원 사역을 담당한 오정식 지도목사와 교사들이 저희 고등부에 믿음으로 보내 주시고 맡겨주신 학부모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들은 가정의 희망이고 서울교회의 미래의 기둥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이며 모두가 천국의 시민들입니다. 이런 소중한 자녀들이 믿음의 바른 성장을 위하여 지도목사와 교사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교육하며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등부는 이번 겨울수련회도 "Born Again" 주제로 1월 29일(목)부터 31일(토)까지 강화도 연동수련원에서 가지고자합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초대합니다.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등부에서는 수련회를 가질 때마다 교사들이 기도회를 가지는데 그 첫 번 기도제목이 이번 수련회에 고등부 친구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번 수련회에 꼭 가자고 하면, "학원가야 되는데요.", "과외 있는데요." 학생들은 다르지만 대답은 동일합니다. 결국 학원이나 과

외수업 일정과 수련회 일정이 겹쳐있는 상황에서 학원이나 과외를 포기하고 수련회를 가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아무리 공부 중요하다고 해도 아이들이 아프다면 아이들의 건강부터 챙겨야 합니다. 그러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의 영혼입니다. 아이들의 신앙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신앙이 바로 세워져야 공부 잘 하고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겨울수련회는 "거듭남"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진행됩니다. 신앙에 대한 가장 진지한 고민을 할 시기가 바로 "고등학"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에 대한 고민 가운데 핵심적인 것이 바로 "거듭남"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번 겨울수련회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주저하고 고등부에 나오지 못한 학생들을 하루 속히 고등부로 보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수련회에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른 교육과 바른 신앙을 위해서는 학부모님들의 참여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기도로 밀어주시기 바라며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가정마다 더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비상하는 대학·청년부

미래 서울교회의 얼굴이 될 청년부와 대학부 젊은이들. 순례자는 2004년 새해를 맞아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 앞에 헌신하며 부흥을 준비하는 현장을 들여다보았다.

## 대학부

## 청년부

꿈!

대학부가 오랜 잠에서 깨어나 전도의 길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다같이 줄넘기를 해도 자리가 남을 것 같던 대학부실이 이제는 다리도 못 펴고 앉을 정도로 사람들로 가득 찼다. 5배나 많아진 사람들, 겨우 반년만의 쾌거였다.

대학부에게 전도는 사명이었다. 그 기록에는 바로 작년 여름 수련회 때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힘을 얻은 사도들의 행진이 시작됐다.

우선 찬양과 예배는 기존처럼 토요일 오전 10시에 하는 대신 주일집회를 새로 만들어 성경공부와 친교의 시간을 분담하는 개혁부터 단행했다. 특히 주일집회는 날이 갈수록 부흥하여 현재 100명이 넘는 부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하반기 동안 성경공부 시간에 배운 사도행전은 이들에게 복음전도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다. 이는 10월 대학부의 전도학교 참여로 이어져 지난 달 17명이 처음으로 이 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20여 명이 새로 수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금 대학부는 전도의 파도를 타고 물밀 듯이 쏟아지는 새로운 지체들을 위해 새가족부를 창설했다.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정예의 스태프로 '준비된 8주'를 통해 새 가족을 배출해내는 새가족부는 이제 대학부의 얼굴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엔 작년에 붙은 불씨에 부채질을 해 세상 끝까지 활활 태울 기세이다. 주일집회에서는 사도신경에 이어 로마서 공부를 통해 기초다지기에도 돌입한다. 한편 방학동안 매주 금요일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반적인 맥을 짚어보는 '성경의 맥'이라는 모임을 갖는다고 한다. 올해 새로 만든 '솔티모임'은 각 부서 리더들이 다윗을 공부하며 영적 리더십과 지체 관리 능력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건강한 사람이 되려면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야 하듯 전도도 마찬가지다. 대학부는 이런 영적인 준비를 기반으로 올해는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대학부 내에서는 '애들아, 안녕'이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끊임없이 늘어나는 신입들을 위한 배려이다.

전도학교 수료자들은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교회 밖으로 나가 잠든 심령들을 깨워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을 담당할 것이다. 더 나아가 3월부터는 '캠퍼스 전도단'을 만들어 현양대, 고려대 등 대학부원이 여럿 포진해 있는 학교에서 전도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들은 이제 시작일 따름이라고 말한다.

올해 대학부의 모토는 4WD이다. '예배, 말씀, 전도, 섬김'이라는 목표와 자기부양, 경건, 헌신, 제자도라는 비전의 영어단어의 앞 글자를 합성한 단어이다. 4WD는 또한 4륜구동을 뜻한다. 이는 앞바퀴만 움직이고 뒷바퀴는 앞바퀴에 따라 구르기만 하는 2륜구동과는 다르다. 앞뒤 바퀴 모두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4륜구동처럼 누구나 동참하고 헌신하는 제자들의 모임이 되자는 각오이다. 올 한해도 4륜구동엔 전 힘차게 걸어 전도의 길을 거침없이 달려 나가는 대학부가 되길 기대해본다.

글: 고은실 · 사진: 오주명 (편집부)

지난해 고정 인원 백 명을 넘어서며 양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던 청년부(부장: 오정수 장로)는 새해 들어서도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에서 동시에 성장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 세 가지를 꼽는다면 첫째로 풍성해진 교제, 둘째 체계적인 말씀 공부 기획의 확충, 그리고 셋째로 토요일 모임의 활성화였다.

우선 기존의 그룹성경공부, 즉 GBS모임은 교제와 기도를 강화한 형태의 기도합주회 모임으로 변화됐다. 다시 말해 그동안 청년들은 예배를 마친 뒤 청년부실에 모여 각 소그룹 조장의 인도로 성경공부를 했는데, 이제는 조별 기도와 교제의 시간을 더 많이 갖는다는 것이다. 청년들끼리 영적교제를 보다 심도 있게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더욱 큰 사랑의 공동체로 성장시킨다는 전략이다.

대신 말씀공부의 기회를 보다 많이 부여하기 위해 청년부에는 매주 일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청년부 지도 목사님(이태훈)이 전하는 말씀공부 시간 외에도 목요일 새벽 6시 10분과 토요일 오후 4시 말씀 공부시간이 추가로 개설됐다. 평일에 네 번에 걸쳐 말씀 공부를 할 수 있는 셈이다. 이들 말씀공부 시간에 참석하는 청년이 연인원 80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이어지는 말씀공부 시간은 영적으로 갈급한 직장인들에게 훌륭한 영적 공급원 역할을 하면서 벌써부터 많은 청년들이 모여들고 있다. 게다가 참석한 청년들끼리 자발적으로 순번을 정해 아침식사를 제공하고 있어서 새로운 전통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여기에 다른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 중 이 모임을 찾는 경우도 많다.

토요일 모임의 활성화도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다. 지난해엔 말씀공부와 간단한 교제에 그쳤던 토요일 모임은 새해부터는 찬양과 말씀, 그리고 기도 등 20분씩 진행하며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이밖에도 일론 눈에 띄지는 않지만 청년부 구역구석에는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이 보인다. 직장인이 많은 청년부의 특성을 심분 활용해 청년부 재정의 자립화를 모색하고 있고, 3부 청년예배를 내실화하기 위해 분당 1층 자리 앉기 운동을 추진하는 등 교회를 섬기라는 하나님 말씀을 곳곳에서 실천하고 있다. 해마다 직장인 동계수련회를 가장 늦게 떠났던 청년부는 올해도 2월 29일부터 3월 1일까지 갈보리 금식기도원으로 수련회 일정을 잡았다. 그 어느 해보다 참석이 많은 최대 규모 수련회가 될 전망이다. 이런 수련회를 계기로 더더욱 성장하는 2004년 새해를 맞기를 청년부는 기대하고 있다. 새 봄처럼 싱그러운 청년들의 공동체가 올 한 해도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길 기도한다.

김명철 (편집부)



## 서명철 목사(대학부 지도)



먼저 2003년을 돌이켜 보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7월 첫 주일부터 6개월간 에 걸쳐 계속된 사도행전 대장정(조별성경공부)을 통하여 대학부는 개인적인 영적 성숙뿐만 아니라, 양적 성장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공부를 통하여 우리들 가운데 임하신 성령의 역사에 순종함으로써 이제는 주일성경공부에 100명이 넘게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복음전도의 열망에 불타올랐던 사도 바울을 본받아 17명이 전도학교 제7기 훈련을 마치고 다시 제8기에 21명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연초부터 새가족반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부 예배 후에 2층 로비에서 찬양을 하며 아직 대학부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새가족들을 703호로 안내합니다. 같은 시간에 다른 대학부원들은 10개 조로 나누어서 선생님들의 인도하에 701호에서 로마서를 공부합니다. 사도행전으로 시작된 성령의 역사를 로마서를 통하여 복음의 더 깊은 진수를 깨닫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전도를 위하여 우리의 일생을 주님께 헌신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2월 12-14일에 있게 될 2004년도 겨울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소서." 라는 주제로 모이게 될 이번 겨울수련회를 통하여 새 은혜를 받고 금년도에 더 힘차게 주님 보좌를 향하여 달려가는 대학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 이태훈 목사(청년부 지도)



청년들의 특징은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이상을 좇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높지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은 뜨겁습니다.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꿈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힘든 현실 속에서도 결코 타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청년은 절망하면서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와 격려입니다. 불의가 기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깨은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심은 대로 거두도록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분의 존재가 청년들에게는 큰 위로입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능력을 갖춘 행복인"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청년들이 신앙 속에서 이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치지 않는 능력을 발견하고 끊이지 않는 행복을 발견했다고 우리가 생생하게 간증해야 합니다. 신앙을 말하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러다보면 어느 때에 가서는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배우며, 그 배운 것을 세상 속에서 실천해 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확신과 자신감을 얻어감에 따라 그들이나 남들에게도 '이 길'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청년들을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세상 속에서 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은 청년이 아닙니다. 강한 자여, 그대 이름은 청년입니다. 부디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얻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연기옥 집사(교구)

'당신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누군가 나에게 이 질문을 해온다면 "아주 많아요." 라고 선뜻 대답할 수 있을까? 나 자신을 과신해도 안 되지만 과소평가 하는 것도 심리적 질병에 속한다고 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면밀한 계획 속에 인도하셔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다.

체휼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크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려 한다. 불신자 가정(불교) 시집을 와서 신앙적 갈등으로 몹시도 힘들었을 때 '하나님! 왜 저같이 나약한 자를 이 가정으로 보내셨습니까?' 눈물로 많은 날들을 베갯잇을 적시던 때가 생각난다. 남편

은 외아들이라 분가는 생각지도 않으시는 시부모님이셨다. 다행히 시댁은 제사가 없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셨다.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으시려고 시조부님께서 돌아가시면서 "기제사는 불필요한 것이니 종중들이 따로 모여 시제로 올리라"는 유언을 남기셨기에 집에서 하는 제사는 없어지게 되었다. 남자들만 참석하는 그 때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남편이 피할 길을 주실 것을...

하나님은 제사 때마다 어김없이 일기를 갖게 만드셨고 시아버님은 그럴 때마다 길이 미끄러워 위험하니 가지 말라고 하셨다. 어느 날 축호 전도 나온 권사님께 믿음 생활의 갈급함을 전했더니 분가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주어 시댁에서 4년 만에 나올 수 있게 되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죽은 믿음에 단을 잘 쌓아 오고 있다. 교회 나가는 것이 발각되었을 때 (2001. 2. 순례자에 우리 가족의 기사가 실림) 시부모님은 절연을 선언하고 떠나셨지만 일주일

못 넘기고 전화를 주셨다. 그리고 이제는 더 많은 사랑으로 우리들을 감싸주신다. 지금은 "너희들이나 열심히 믿어라" 하시지만 "그토록 좋아하는 그 하나님 나도 믿어야겠다." 하실 그날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음을 확실히 믿고 기도하며 기다린다.

요즈음 나는 두 가지 자주 듣는 말이 있다. "집사님! 또 눈물 흘리네!" "집사님은 복도 많으셔!" 고3수험생 엄마로서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교회행사에 그 어느 때보다 열심을 다했다. 다행히 수험생 아들은 독서실에서 공부해야 잘 된다면서 밤늦게 귀가를 했고 그래서 많은 시간을 더 자유롭게 하나님 일에 쏟을 수가 있었다. 다른 수험생 부모들이 입시전략이라며 이것도 해야 한다, 저것도 해야 한다 동분서주할 때 나는 8월부터 메사시 찬양제 연습을 시작했고, 막바지에는 연합으로 연습해야 하였기에 더욱 바빴다. 그리고 하나님에 자녀는 나에 소유물이 아님을 알기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기도 했다. 다행히 아이는 열심히 노력했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그 어느 해보다 치열했던 의과대학에 합격했다. 나는 그간 우리 아이가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로서 만나는 환자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역할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꾼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 동안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들어 응답해 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 에스더 남편 초청잔치를 가다

# 남편이 살아야 가정이 산다

꿈과 사랑과 감동이 어우러진 밤!

1월 13일 802호실에서 새해 들어 첫 번째 에스더 (55-59) 여전도 율례회를 시작하면서 남편 초청 잔치를 열었다.

남편들은 아내들이 달아준 장미꽃 코사지를 달고 의젓하게 그리고 약간은 썩스러운 표정으로 입장 하였다.

전날 밤 하얗게 내린 눈길을 헤치며 그 얼마나 어려운 외출이었던가! 결혼 생활 20, 30년의 연륜 속에서 크고 작은 짐을 나누어지며 한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아끼고 섬기던 부부들이 교회 한자리에 모였다.

행복하고 좋은 시간들 보다는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서로 울고 웃으며 함께 기도하던 부부들은 어쩌면 부부라기 보다는 오래된 친구 같이 깊은 정이 배어있는 속 깊은 동역자, 겨울나무들 같았다.

"남편이 살아야 가정이 산다." 는 주제로 강사 김광신 장로님의 코믹하면서도 일침을 찌르는 강의는 어려운 때를 만난 남편들의 위상과 권위를 한층 높여주는 회복의 시간이 되었으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아름다운 시간이기도 했다. 가정의 태두리 안에서 습관적으로, 또는 법으로 산다고 하는 무더지고 둔해진 부부들은 서로 역할을 바꾸어 생각해 보며 결혼 초 그때의 감동과 감격의 시간을 잠시 기억해보기도 하였다.

요즘은 작은 일로 속절없이 깨지는 가정들이 많으며 황혼기 부부들의 이혼률도 예전보다 훨씬 높다고 하는데 우리 에스더들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성격적으로 아내의 머리가 남편임을 확신하고 그 동안 서로 협력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회개하며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내는 남편의 안에 뜨는 해, 따뜻하고 밝고 환한 해가 되며 아내들의 사랑과 헌신이 하늘나라에 닿는 행복한 가정으로 이끌어 나가는 힘이 될 것이라고 김 장로님은 강의를 마쳤다.

아직도 우리가정에 짝 믿음이 있어 많은 남편들이 참석하지 못함은 매우 유감이었으며 그 부분은 기도로 계속 협력해야 함이 에스더들의 가장 우선적인 숙제인 듯하다.

3부로는 웃놀이를 하며 오랜만에 부부들의 한 마당이 되었고 새가족으로 오신 부부들에게도 교제의 시간으로 유익했으며 임원단들과 많은 회원들의 준비 가운데 10조로 편성된 웃놀이는 최광성 집사님의 엄격한 심사로 믿음 소망 사랑 상이 시상되었다.

모든 순서를 끝내고 서로 서로 목숨 같은 아내와 하늘 같은 남편으로 굳게 다짐한 약속한 부부들의 눈가에는 더 깊은 정이 서리어 있었고 천국 같은 가정을 향하여 돌아가는 발걸음은 마냥 행복하게만 보였다.

신동기(편집부)

### 동정

- 박정선 장로는 1월23일 합창작품 발표를 위해 미국 달러스로 출국한다.
- 찬양대 양성반은 3월7일(주)에 개강할 예정이다.
- 개업: 이태상 집사 김희숙 권사 (5교구) 두레박 개업 031-391-1344
- 주간식당봉사: 빌립남선교회(18일) 안드레남선교회(25일)
- 금주의 식사: 임옥근 집사, 박영자 권사 가정 (부도님장례를 마치고), 전장복 집사 한난숙 집사 가정 (자녀결혼을 마치고)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T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li> <li>■ 위성 CH 162(기독교방송) 매주 수 오전 7시</li> </ul>
라디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LKY 98.1 MHz(극동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li> <li>■ HLXK 106.9 MHz(기독교 방송) 생명의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li> </ul>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산나넷 - <a href="http://hosanna.tv">http://hosanna.tv</a></li> <li>■ 기독교 TV - <a href="http://www.cts.tv">http://www.cts.tv</a></li> </ul>

## 서울 주간기도

###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말은바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도록
2. 병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실직자, 소외된 자, 입시생들을 위하여
3. 새해에는 최상의 선택만 할 수 있도록
4.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약도 :

